

저자 미상
편자 왕명학
국역 박상영
해제 박상영

軍中 醫藥



비매품

95510



9 788959 701674 (EPUB)
9 788959 702329 (MOBI)
9 788959 702312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집의약설 輯醫藥說	1.1
역기로 인한 온갖 병을 빨리 낫게 하는 방법에 관하여 疫氣諸病捷說	1.2
다치거나 무기에 신체가 손상된 경우 折傷金瘡說	1.3
파상풍에 대하여 破傷風論	1.4
행군하다가 연기나 불에 상한 경우 行軍煙火所傷	1.5
겨울철에 손발이 트고 찢어지는 경우 冬月手足皸裂	1.6
다섯 가지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치료 救五絶死	1.7

해제·출판

해제	2.1
출판사항	2.2

1.1. 輯醫藥說 | 집의약설

王鳴鶴曰: 國家所藉以安社稷衛生靈者, 必先于軍興之典. 故出萬死一生. 爲社稷生靈, 授命效力, 莫重於軍, 而爲將者所宜體恤愛護, 亦莫重於軍, 故上必愛其下, 斯下亦忠其上, 如手足腹心, 無間於內外而後, 鼓舞運動, 靡不如意, 此必然之勢也. 穰苴醫藥必親, 三軍之羸弱者, 爭先以赴戰; 吳起爲卒吮咀, 能得衆志, 韓秦不敢側目西河之境, 拊循之効驗, 可槩觀已. 夫民命至微, 而欲生惡死, 其情則一. 吾旣以置其身於戈矛鋒鏑之下, 苟體恤愛護之弗固, 是自棄其衆也. 旣自棄其衆, 一朝用以決戰, 而望其敵愾, 其將能乎? 故曰: “惟民是保, 而利于上.” 又曰: “良將養士, 不易乎身.” 斯眞萬世之龜鑑哉! 乃輯醫藥, 而繫之臆說如斯云.

왕명학(王鳴鶴)은 말한다. 국가가 사직(社稷)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군대의 법도를 우선해야 한다. 그래야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살아남는 것이다. 사직과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온힘을 쏟아야 하는 대상은 군졸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장수가 된 자가 마땅히 제 몸처럼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도 군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때문에 상급자가 반드시 하급자를 사랑해야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충성을 바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급자는 하급자를 자신의 수족(手足)처럼 여기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자신의 복심(腹心)처럼 여겨 안팎으로 배반하려는 마음이 없게 되고, 격동시켜 전진시키는 것을 어떤 경우나 뜻대로 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제(齊)나라 사마양저(司馬穰苴)는 손수 아픈 군졸을 치료해주어 군졸 가운데 병약한 자들이 앞 다투어 전투에 달려 나갔고, 위(魏)나라 오기(吳起)는 군졸의 종기를 빨아 치료하여 군졸의 마음을 얻어 한(韓)나라와 진(秦)나라가 서하(西河) 지역을 엿볼 수 없었으니, 군졸을 아끼고 사랑했을 때의 효과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다. 백성의 목숨은 하잘 것 없지만, 살고자 하고 죽기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이다. 내가 이미 창칼로 무장한 군대에 투신했으니, 군졸을 내 몸처럼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하지 않다면 이것은 내 스스로 군졸을 버리는 것이다. 이미 나 스스로 군졸을 버리고는 하루아침에 그들을 데리고 전투를 벌이면서 적군에게 강하게 맞서기를 기대하는 것이 가

능하겠는가. 그러므로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는 “백성을 보호하면 임금에게 이롭다.” 했고, 『삼략(三略)』에서는 “훌륭한 장수는 군졸을 잘 보호하여 자기 몸처럼 아낀다.” 했으니, 이는 참으로 영원히 귀감으로 삼아야 할 말이다. 이에 의약에 관한 처방을 모아 책을 만들고 이처럼 나의 억설(臆說)을 붙인다.

1.2. 疫氣諸病捷說 | 역기로 인한 온갖 병을 빨리 낫게 하는 방법에 관하여

古者行軍, 必急醫藥, 蓋結營必依山川, 每犯山嵐海氣, 兼之霜雪風雨, 奔走罷勞, 沍寒酷暑, 野屯露宿, 衆人氣穢交蒸, 疫病易起, 不服水土, 霍亂瘧痢, 愴悴有病, 不暇安臥調理. 必須預備藥餌, 藥雖數種, 醫者須擇隨營聽用, 審證診脉, 變通加減, 引而長之, 可以應變無窮. 用之有法, 投一匕則起一人, 十匕則痊十人, 是亦臨戎不可缺者也.

옛날에 출병할 때에는 반드시 의약을 우선시 하였으니, 이는 군영을 꾸릴 때에는 반드시 산천을 의지하기 때문에 매번 산과 바다의 사기(邪氣)를 범하고, 아울러 서리와 눈, 비바람까지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몹시 내달려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혹한이나 무더위에 들판에서 노숙하며 주둔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의 더러운 기가 서로 엉겨서 역병이 쉽게 발생하였으며, 수기와 토질이 맞지 않아 객란이나 학질·이질을 앓아 파리하게 병들었으나 편안히 누워 몸조리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약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하더라도 의원은 반드시 군영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필요할 때에 쓰되 증세를 살피고 진맥하여 변통하고 가감하여 좋은 증세로 이끌어 주면 무궁하게 전변(傳變)에 응할 수 있다. 약을 쓰는 데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으니, 한 손가락을 투약하면 한 사람을 병상에서 일으키고 열 손가락을 투약하면 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삭방군에게도 명심해야 하는 점이다.

1.2.1. 治法 | 치법

1.2.1.1. 疫病初起一二日 | 역병의 초기 1~2일

頭疼身熱, 骨節疼, 用芎蘇散, 發散而愈. 若兼有飲食停滯嘔吐等症, 用藿香正氣散.

머리가 쓰시고 몸에 열이 나고 뼈마디가 쑤신 경우에는, 궁소산(芎蘇散)을 써서 발산시키면 낫는다.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서 먹은 음식이 체하여 구토 등의 증상까지 있는 경우에는,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을 쓴다.

芎蘇散 | 궁소산

治疫病頭疼身熱, 骨節痛傷風等症.

역병으로 머리가 쓰시고 몸에 열이 나며, 골절통과 상풍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川芎十兩, 紫蘇一斤, 陳皮十兩, 茯苓十兩, 甘草十兩, 乾葛二十兩, 半夏十兩, 柴胡二十兩, 枳殼十兩, 桔梗十兩, 香附子炒十兩. 冬加麻黃 白芷 各八兩.

천궁 10냥, 자소엽 1근, 진피 10냥, 복령 10냥, 감초 10냥, 갈근 20냥, 반하 10냥, 시호 20냥, 지각 10냥, 길경 10냥, 향부자(볶는다) 10냥. 겨울에는 마황 백지 각 8냥을 더한다.

共爲末, 每用兩許一匕, 姜葱湯送下, 衣覆取汗.

이상의 약재를 함께 가루 내어 1냥 들이 가량의 숟가락으로 1숟가락을 생강과 파를 넣어 달인 물로 복용하고, 옷을 덮고 땀을 낸다.

藿香正氣散 | 곽향정기산

治四時不正之氣, 寒疫時氣, 山嵐瘴氣, 雨濕蒸氣, 或中寒腹痛吐利, 中暑冒風吐瀉, 中濕身重, 不伏水土, 飲食停滯, 嘔吐無汗等症.

사계절의 부정한 기운으로 인한 유행성 한역(寒疫), 산람장기(山嵐瘴氣), 비나 습기의 증기, 혹은 한사(寒邪)로 인해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하는 경우, 더위 먹거나 바람을 심하게 쐬어 토하고 설사하는 경우, 습사의 침입으로 몸이 무거운 경우, 수질이나 토질이 몸에 맞지 않아 음식물이 정체되어 구토하지만 땀이 나지 않는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藿香二十兩, 蒼朮一斤炒, 厚朴一斤炒, 陳皮一斤, 半夏一斤, 茯苓一斤, 白芷一斤, 桔梗一斤, 大伏皮一斤, 紫蘇一斤, 甘草十兩.

곽향 20냥, 창출(볶는다) 1근, 후박(볶는다) 1근, 진피 1근, 반하 1근, 복령 1근, 백지 1근, 길경 1근, 백복피 1근, 자소엽 1근, 감초 10냥.

共爲末, 每用一兩匕, 姜湯下.

이상의 약재를 함께 가루 내어 1냥 들이 숟가락으로 1숟가락을 생강 달인 물로 복용한다.

1.2.1.2. 疫病三四日 | 역병이 발병한 지 3~4일이 되었을 때

得汗後未解, 眼眶痛, 或寒熱往來, 口苦嘔吐, 柴胡雙解散主之. 熱盛大便不通, 河間雙解散主之.

땀을 낸 후에도 낫지 않고, 눈자위가 아프거나 혹 추웠다 더웠다 반복하고 입 맛이 쓰면서 구토하는 경우에는, 시호쌍해산(柴胡雙解散)을 주로 쓴다. 열이 심하고 대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하간쌍해산(河間雙解散)을 주로 쓴다.

柴胡雙解散 | 시호쌍해산

柴胡 黃芩 半夏 人參 甘草 乾葛 茯苓 陳皮 芍藥 各等分. 姜三片, 棗一枚, 水煎服.

시호 황금 반하 인삼 감초 갈근 복령 진피 작약 각각 같은 양. 이상의 약재에 생강 3쪽과 대추 1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河間雙解散 | 하간쌍해산

此方得其妙者, 變通無窮, 全在加減, 卽防風通聖散, 合益元散.

이 처방에서 신묘함을 얻은 경우에는 무궁무진하게 변통할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가감법에 달려있다. 이 처방은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에 익원산(益元散)을 합한 것이다.

薄荷一兩, 黃芩一兩, 連翹一兩, 石羔一兩, 滑石七錢, 川芎一兩, 麻黃八錢, 桔梗一兩, 甘草一兩, 朴硝五錢, 荊芥一兩, 防風二兩四錢, 當歸一兩二錢, 芍藥一兩, 枝子¹一兩, 白朮一兩五錢, 大黃審病加減.

박하 1냥, 황금 1냥, 연교 1냥, 석고 1냥, 활석 7돈, 천궁 1냥, 마황 8돈, 길경 1냥, 감초 1냥, 박초 5돈, 형개 1냥, 방풍 2냥 4돈, 당귀 1냥 2돈, 작약 1냥, 치자 1냥, 백출 1냥 5돈, 대황(병세를 살펴 가감한다).

右共爲粗末, 每用一兩五錢, 再量病虛實加減, 白滾湯下. 煎服亦可.

이상의 약재를 섞어서 거칠게 가루 내고 매번 1냥 5돈씩 쓴 다음, 다시 병이 허증인지 실증인지에 따라 약재를 가감하여 끓인 물로 복용한다. 달여서 복용해도 좋다.

1.2.1.3. 虐疾初發 | 학질이 처음 발병했을 때

用藿香正氣散, 一二服, 用鬼哭丹截之.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을 1~2번 복용한 후, 귀곡단(鬼哭丹)을 복용하여 증상을 멈추게 한다.

鬼哭丹 | 귀곡단

虐疾二三發後, 服此截之.

학질이 2~3번 발병한 후에 이 약을 복용하여 증상을 멈추게 한다.

黑豆四百九十粒, 菡豆四百九十粒, 雄黃二兩五錢, 信石二兩.

검정콩 490알, 녹두 490알, 옹황 2냥 5돈, 비상(信石) 2냥.

右爲末, 蒸餅爲丸, 如芡實大, 每服一丸, 冷水下, 忌熱飲食一日.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낸 뒤 증편으로 반죽하여 감실만 하게 환을 빚어 1환씩 냉수로 복용하고 하루 동안은 뜨거운 음식을 삼간다.

1.2.1.4. 痢疾初發 | 이질이 처음 발병했을 때

用化滯丸, 行去積滯, 次用加味香連丸, 止之.

화체환(化滯丸)으로 적체된 것을 내려 보낸 뒤 가미향련환(加味香連丸)으로 설사를 멈추게 한다.

化滯丸 | 화체환

丁香一兩, 胡椒一兩, 巴豆霜 一兩.

정향 1냥, 호초 1냥, 파두상 1냥.

右爲末, 麪糊爲丸菉豆大, 每服二十丸, 量人加減, 白湯下.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낸 뒤 밀가루로 쏘 풀에 개어 녹두알만 하게 환을 빚는다. 매번 20환씩 복용하되 환자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여 끓인 물로 복용한다.

加味香連丸 | 가미향련환

止痢甚驗, 泄瀉亦治.

이질을 멈추게 하는데 매우 효험이 좋으며 설사 역시 치료한다.

五倍子四兩炒, 黃連二兩炒, 吳茱萸一兩, 木香一兩.

오배자(볶는다) 4냥, 황련(볶는다) 2냥, 오수유 1냥, 목향 1냥.

右爲末, 煮棗肉爲丸梧桐子大, 每服三四十丸, 米湯下.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낸 뒤 삶은 대추의 과육(果肉)으로 반죽하여 벽오동씨만 하게 환을 빚는다. 매번 30~40환씩 쌀을 넣어 끓인 물로 복용한다.

霍亂 | 객란

暑月霍亂, 益元散涼水調灌, 冬月炒鹽湯灌之. 因食霍亂, 藿香正氣散主之. 中寒霍亂, 吳茱萸鹽炒, 煎服, 再用茱萸煎熨臍下.

여름철의 객란에는 익원산(益元散)을 시원한 물에 타서 입에 떠 넣어주고, 겨울철의 객란에는 익원산(益元散)을 볶은 소금을 넣어서 끓인 물에 타서 입에 떠 넣어준다. 음식으로 인한 객란에는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을 주로 쓴다. 한사(寒邪)로 인한 객란에는 오수유(소금물에 축여서 볶는다)를 달여 복용하고, 또 오수유를 지져서 배꼽 아래를 찜질한다.

益元散 | 익원산

滑石六兩, 甘草一兩. 共爲細末.

활석 6냥, 감초 1냥. 이상의 약재를 섞어서 곱게 가루 낸다.

1.2.1.5. 中暑 | 중서 : 더위 먹은 경우

黃連香薷飲主之.

황련향유음(黃連香薷飲)을 주로 쓴다.

黃連半斤, 香薷一斤, 厚朴半斤, 甘草四兩.

황련 반 근, 향유 1근, 후박 반 근, 감초 4냥.

每用四兩, 水一大釜, 煎二三沸, 去渣, 涼服. 暑月無病, 亦宜, 遍與服之, 則無中暑之患.

매번 4냥을 큰 솥으로 1솥의 물에 넣고 2~3번 끓여오를 때까지 달인 뒤 찌꺼기를 제거하고 차갑게 복용한다. 여름에 병을 앓지 않아도 복용하면 좋고, 여름철 내내 복용하면 더위를 먹을 염려가 없다.

1.2.1.6. 中寒 | 중한

冬月卒中寒邪, 厥冷僵仆.

겨울에 갑자기 한사(寒邪)의 침범으로 인해 팔다리가 싸늘해지며 쓰러지는 경우이다.

急以繩束葱二斤, 切去兩頭, 如餅式火上燒熱. 安患人臍下, 上用火熨之, 卽甦. 無葱則以湯濕布, 蓋臍下, 上用帶火熱灰熨之.

급히 파 2근을 끈으로 묶은 뒤 양쪽 끝부분을 잘라내어 떡을 굽듯이 불에 뜨겁게 구워서 환자의 배꼽 아래에 두고, 그 위를 불기운으로 다림질하면 깨어난다. 파가 없으면 뜨거운 물에 적신 베로 배꼽 아래를 덮고 그 위를 불기운이 남아있는 뜨거운 재로 찜질한다.

服附子理中丸.

부자이중환(附子理中丸)을 복용한다.

人參 甘草炙 白朮 乾姜炮 附子製 各等分【人參減半】.

인삼 감초(굽는다) 백출 건강(습지에 써서 굽는다) 부자(법제한다) 각각 같은 양【혹, 인삼은 반을 줄인다】.

右爲丸鷄子黃大, 滾沸湯嚥下.

이상의 약재로 계란 노른자만 하게 환을 빻어 끓인 물에 갈아서 복용한다.

備急丸 | 비급환

治卒暴百病, 中惡客忤, 治口禁〔噤〕停尸卒死.

갑작스러운 온갖 병과 중악(中惡)과 객오(客忤)를 치료하며, 이를 악다물고 시체처럼 되어 갑자기 죽게 된 것을 치료한다.

巴豆 大黃 乾姜 各等分.

파두 대황 건강 각각 같은 양.

右蜜丸杵千下如小豆大, 每三丸, 苦酒下. 如幹口不開, 折齒灌之. 亦治心腹諸疾.

이상의 약재를 꿀에 개어 절구로 천 번 찌은 후 팔알만 하게 환을 빚어 매번 3환씩 식초로 복용한다. 만약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앞니를 부러뜨리고 그 사이로 약을 부어 넣어준다. 가슴과 배의 여러 가지 병도 치료한다.

槐花酒 | 괴화주

治一切瘡毒, 不問已潰未潰, 焮痛發熱.

창(瘡)이 터졌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온갖 창독(瘡毒)으로 화끈거리면서 아프고 열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用槐花一升炒黃, 入酒煎服, 其毒即消.

괴화(누렇게 될 때까지 볶는다) 1되를 술에 넣고 달여서 복용하면 창독이 곧 없어진다.

轉毒丹 | 전독단

治發背癰疽, 不問淺深大小, 利去病根, 則免傳變, 不動元氣.

옹저발배의 깊이와 크기에 상관없이 병의 근원을 순조롭게 제거하니, 전변 될 염려가 없으며 원기도 손상시키지 않는다.

車螯【紫背光厚者, 以鹽泥固濟, 煨令通赤, 候冷淨取末. 一兩.】, 甘草一分, 輕粉五分.

차오【등이 자주색이며 빛이 나고 두터운 것을 쓰되, 소금기 있는 진흙으로 촘촘히 발라서 전체가 붉게 될 때까지 불에 달구고 식기를 기다렸다가 씻어서 가루 낸다. 1냥.】, 감초 1푼, 경분 5푼.

右一處爲細末, 每服四錢, 溫酒調下.

이상의 약재를 섞어서 곱게 가루 내어 매번 4돈씩 따뜻한 술에 타서 복용한다.

仙方蠟礬丸 | 선방납반환

治一切癰疽, 托裏, 止疼痛, 護腑臟神妙. 不問老幼, 皆可服之.

온갖 응저를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어 통증을 멎게 하며, 장부(臟腑)를 보호하는 데에 신묘한 효험이 있다.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복용할 수 있다.

黃蠟【一兩. 黃色好者, 溶開離火.】入白礬末一兩.

항랍【1냥. 누렇게 좋은 것을 불로 녹인다.】에 백반 가루 1냥을 넣는다.

右二味和勻, 用衆手急丸梧桐子大, 每服十丸漸加至二十丸, 熱水或溫酒送下, 日進二服即消.

이상의 2가지 약미를 고루 섞은 뒤 여러 사람이 급히 벽오동씨만 하게 환을 빚는다. 10환부터 점차 더하여 20환까지 복용하는데,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술로 하루에 2차례 복용하면 응저가 없어진다.

如神散 | 여신산

治癰疽便毒.

응저와 변독(便毒)을 치료한다.

用明白礬, 不拘多少, 端午日曬. 如遇前症, 用五錢, 爲細末, 葱白七根擣爲大丸, 以滾酒送下, 汗出爲度.

명백반 적당량을 단옷날의 햇볕에 쬌어 말린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5돈을 곱게 가루낸 뒤 총백 7뿌리를 찢은 것으로 반죽하여 크게 환을 빚는다. 끓인 술로 땀이 날 때까지 복용한다.

神仙截法 | 신선절법

治癰疽發背.

옹저발배를 치료한다.

眞麻油【一斤, 煎十數沸, 傾出候冷】

좋은 참기름【1근을 십여 번 끓여오를 때까지 달인 뒤 부어서 식힌다】.

右用無灰酒二碗, 浸油內約五大盞許, 重湯溫稍熱, 通口急服, 一日盡之爲妙.

무회주 2사발을 위에서 말한 좋은 참기름 큰 잔으로 5잔 가량에 넣고 약간 뜨거울 때까지 중탕하여 한 입 가득 넣어 재빨리 복용하되, 하루에 모두 다 복용하면 매우 좋다.

立效散 | 입효산

治發背及諸癰癤.

발배와 여러 가지의 응절을 치료한다.

紫色皂角刺【半斤. 不用枯者, 細剉, 火炒赤.】, 生粉草二兩, 乳香別研半兩, 沒藥別研一兩, 瓜蒌【五個. 去皮取肉, 併仁研碎炒黃色. 用乾者, 不必炒.】

자주색 조각자【반 근. 마른 것은 쓰지 않고 얇게 썰어서 볶아질 때까지 불에 볶는다.】, 감초(생것을 쓴다) 2냥, 유향(따로 간다) 반 냥, 몰약(따로 간다) 1냥, 과루【5개. 껍질을 제거하고 과육만 취한 다음, 씨와 함께 갈아서 누렇게 될 때까지 볶는다. 마른 것을 쓰는 경우에는 볶을 필요가 없다.】.

右爲細末, 每服二錢, 無灰好酒調下, 無時候.

이상의 약재를 곱게 가루 내어 매번 2돈씩 때에 상관없이 무회주에 타서 복용한다.

1.2.1.7. 治癰癤方 | 응절을 치료하는 처방

每覺有尖小癰癤, 疼痛發熱時, 便用生粉草節, 不炙不焙, 只日曬乾. 若無日, 只於焙籠蓋上微火烘乾. 碾爲細末, 以熱酒調二三錢服, 連追數服, 疼痛與熱, 皆止.

뽕족하고 작은 응결이 생길 때마다 아프고 열이 나는 경우에는 감초(생것의 마디를 쓴다)를 굵거나 불에 쪄서 말리지 말고 햇볕에 쪄서 말린다. 만약 햇볕이 없으면 배롱(焙籠)을 씌워놓고 그 위에서 약한 불에 쪄서 말린다. 이것을 맷돌로 곱게 가루 내어 뜨거운 술에 2~3돈 타서 복용하는데, 연달아 몇 차례 더 복용하면 통증과 열이 모두 멎는다.

1.2.1.8. 治喉咽一時疼痛, 水米難入. | 목구멍이 갑자기 아파서 물과 음식을 넘기기 어려운 경우의 치료

無假(暇)取藥, 急用土牛膝草根, 不拘多少, 洗淨搗爛, 加水一大杯, 米醋半小盞, 和勻絞汁. 徐徐嗽吐其汁, 嗽盡即效.

약을 구할 겨를이 없을 경우에는, 급히 적당량의 토우슬의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 문드러지게 찢은 다음, 물 큰 잔으로 1잔과 쌀식초 작은 잔으로 반 잔을 넣어서 고루 섞어 즙을 짜낸다. 천천히 그 즙을 목까지 마셔서 헝구고 뱉어내는데, 그 즙을 모두 다 쓰고 나면 효험을 본다.

1.2.1.9. 又方 | 다른 처방

治咽喉腫痛, 用金燈籠草搗, 取汁嗽喉, 即效.

인후가 붓고 아픈 경우의 치료에는 산자고(金燈籠草)를 찢은 다음, 즙을 내어 목구멍을 헝구면 효험을 본다.

¹. 枝子: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梔子의 이명으로 木丹, 鮮支, 卮子, 黃梔子, 紅梔子, 枝子로 되어있다. 이를 참고하여 치자로 번역하였다. ↩

1.3. 折傷金瘡說 | 다치거나 무기에 신체가 손상된 경우에 대하여

夫折傷者, 謂爲物所傷於身體, 或犯刀斧, 或墜墮險地, 或爲撲跌, 傷筋挫骨, 損皮破肉, 遂致傷生有死. 血出不止者, 有瘀血停積於臟腑, 結而不散者, 治之不早, 則有入腹入心之患, 不可勝言. 凡遇前症, 當視所傷輕重, 如皮未破而內損者, 必有瘀血停積, 先宜逐去瘀血, 然後和血, 止痛. 若肌肉裂破流血過多者, 宜調氣養血, 兼補脾胃爲主. 大抵失血之脈, 沈細者生, 實大者死. 初傷之時, 切不可飲冷水, 亦不可食熱物, 蓋血得寒則凝滯, 得熱則妄行. 至于所忌, 暴怒·勞力·過飲·房勞, 悉皆慎之, 一不慎則未有不死者矣.

절상(折傷)은 물건에 신체가 손상되는 것인데, 혹 칼이나 도끼에 다치거나 위험한 곳에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힘줄이 손상되고 뼈가 꺾이거나 피부가 손상되고 살이 찢겨 마침내 상하여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출혈이 많지 않을 때에는 어혈이 장부에 쌓이고 맺혀서 흠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일찍 치료하지 않으면 어혈이 배와 가슴에까지 들어갈 우려가 있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만약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손상의 경중을 살펴야 한다. 피부가 찢어지지 않고 내부에서 손상된 경우에는 반드시 어혈이 쌓여있을 것이니, 우선 어혈을 제거한 후에 혈을 고르게 하여 통증을 멎게 한다. 살이 찢어져서 과다하게 피를 흘린 경우에는 기를 고르게 하고 혈을 기르고, 아울러 비위(脾胃)를 보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대체로 피를 흘린 경우에 맥이 침세(沈細)하면 살지만 실대(實大)하면 죽게 된다. 처음 다쳤을 때에 절대 냉수를 마시면 안 되며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니, 피가 한기를 얻으면 응체되고 열기를 얻으면 제멋대로 흐르게 되기 때문이다. 몹시 성내거나, 힘든 노동을 하거나, 과음하거나, 성생활 하는 것을 모두 삼가야 하니,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삼가지 않으면 죽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寸金丹 | 촌금단

天花粉三兩, 姜黃一兩, 赤芍二兩, 白芷一兩.

천화분 3냥, 강황 1냥, 적작약 2냥, 백지 1냥.

右爲末. 此一方, 治金瘡重者, 筋斷脈絕, 血盡人亡, 須用繩索及絹帶扎處血路, 然後用此藥以茶清調敷, 用軟絹縛之, 其血立止, 其腫頻消. 若金瘡着水番花者, 可用薤汁調, 敷瘡口, 兩傍以火微炙之. 或用稻稈煙薰之瘡口, 水出即愈.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낸다. 이 처방은 쇠붙이에 의한 상처가 위중한 경우를 치료한다. 힘줄과 맥이 끊겨서 피가 모두 나오면 사람이 죽게 되니, 반드시 새끼 줄이나 명주끈으로 혈관을 동여맨 후에 이 약을 찻물에 개어서 바르고 부드러운 명주로 싸매면 피가 곧 멎고 붓기도 바로 가라앉는다. 쇠붙이에 의한 상처에 물이 닿아 벌어진 경우에는 염교즙에 개어서 상처 부위에 바르고 상처 부위 양쪽 옆을 약한 불기운으로 찌른다. 혹은 벗짚 태우는 연기를 상처 부위에 씌어주면 진물이 나오고 곧 낫는다.

百草丹 | 백초단

治金瘡.

쇠붙이에 다친 상처를 치료한다.

五月五日平朝, 使四人出四方, 於五里採一方草木莖葉, 每種各半把, 勿令脫漏一事. 日午時, 細切碓搗令極爛, 仍先揀好石灰一斗, 同杵之. 復選大實樹三兩, 株鑿十竅, 令可受藥, 然實于竅中, 緊閉之, 畢用麻油搗石灰密泥, 不令泄氣. 更以桑皮纏定令牢. 到九月九日午時, 取出陰乾. 百日藥成搗之, 曝令極乾, 更搗用絹羅之. 凡有金瘡傷損血出, 用藥封裹, 勿令轉動, 十日即差矣, 不腫不膿, 不畏風. 若傷後數日始得藥, 須先用溫水洗, 令血出即敷之. 此藥大驗如神, 預多合之. 金瘡之要, 無出此者.

음력 5월 5일 새벽에 네 사람에게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여 각각 5리 이내에 있는 한 장소(方所) 내의 초목의 줄기와 잎을 매 종류마다 반 줍씩 캐오도록 하되, 한 가지라도 빠지지 않게끔 한다. 이것을 그날 정오에 잘게 썰어서 몹시 문드러질 때까지 방아로 찧은 다음, 먼저 선별해놓은 좋은 석회 1말과 함께 찧는다. 이어서 다시 크고 실한 나무 3대를 골라 이 약을 다 넣을 수 있도록 밑동에 10개의 구멍을 뚫은 후, 구멍 속에 약을 채우고 꼭 막고, 마지막으로 진흙으로

밀봉하듯이 참기름을 넣어 찜은 석회로 밀봉하여 기운이 새어나오지 않게 한다. 이것을 다시 뽕나무 껍질로 단단하게 묶어 고정시켜둔다. 음력 9월 9일 정오에 꺼내어 그늘에서 말린다. 100일이 지나면 약이 만들어지니 찜은 다음, 햇볕에 쬔여 바짝 말렸다가 다시 찜어 명주체로 거른다. 쇠붙이에 다쳐 출혈하는 경우에 이 약으로 싸매고 움직이지 않게 하면 10일 만에 나을 것이며, 붓거나 굼지 않을 것이니 파상풍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다친 지 며칠이 지나서야 약을 구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따뜻한 물로 씻어서 피를 빼고 난 다음에 붙여야 한다. 이 약은 매우 신효하니, 미리 다량을 준비해둔다. 금창 치료의 요법은 이 백초단 처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1.3.1. 治金瘡并木石傷損 | 쇠붙이나 나무·돌에 다친 경우의 치료

用好陳石灰六兩，研碎，篩過，**綿**²紋大黃一兩，切塊，同石灰鍋中炒過，紫色爲度，去大黃，再篩過，敷傷處，立效.

오래된 좋은 석회 6냥을 갈고 부수어 체에 거르고 **금문대황(錦紋大黃)**³ 1냥을 덩어리로 잘라서 석회와 함께 냄비 안에서 자주색이 될 때까지 볶은 다음, 대황을 버리고 다시 체로 걸러 상처에 펴서 바르면 바로 효험을 본다.

止痛生肌散 | 지통생기산

治刀斧傷，出血不止.

칼이나 도끼에 다쳐서 출혈이 멎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乳香 沒藥 兒茶 桑皮炒 龍骨水飛 石膏煨水飛 黃丹水飛 眞三七.【各等分，爲末，摻之立止.】

유향 몰약 아다 상피(볶는다) 용골(수비한다) 석고(불에 달군 뒤 수비한다) 황단(수비한다) 삼칠(좋은 것을 쓴다).【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내어 뿌리면 바로 지혈된다.】

當歸導滯湯 | 당귀도체탕

治重物壓傷, 或高處墜下, 或吐血不能禁止, 或刀箭所傷, 瘀血在內, 胸腹脹滿, 喘促氣短.

무거운 사물에 눌러 다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경우, 혹은 토혈을 멈출 수 없는 경우, 혹은 칼이나 화살에 다쳐서 어혈이 속에 맺혀 가슴과 배가 그득하게 부어오르고 숨이 가쁘고 짧아진 경우를 치료한다.

當歸 大黃 各二兩, 共爲末, 每服二錢, 不拘時, 童便和酒調服.

당귀 대황 각 2냥을 섞어서 가루 내어 2돈씩 때에 상관없이 동변과 술에 타서 복용한다.

芎歸湯 | 궁귀탕

治去血過多, 昏暈等症.

과다한 출혈로 인한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川芎五錢, 當歸一兩.

천궁 5돈, 당귀 1냥.

共爲片水煎, 臨服, 入童便酒各一大杯, 熱下.

이상의 약재를 조각낸 뒤 물에 달여 복용할 때에 동변과 술 각 1큰 잔을 넣어 뜨겁게 복용한다.

又方 | 또 다른 처방

治金瘡折傷, 不問輕重, 以童便一碗, 入酒半碗煎沸, 溫服, 以防惡血攻心之患.【不飲, 只用童便.】

쇠붙이에 다쳐서 절상된 경우를 치료할 때에는 상처의 경중에 상관없이 동변 1사발에 술 반 사발을 넣고 끓어오를 때까지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이 처방으로 악혈이 가슴을 공격하는 우려를 미리 차단한다.【술을 마시지 못하면 동변만 사용한다】

金瘡藥 | 금창약

用馬齒莧 韭菜根 連須葱 陳石灰.

마치현, 부추의 뿌리, 뿌리 달린 파, 묵은 석회.

共調搗爲餅子, 陰乾爲末, 乾摻, 其血卽止.

이상의 약재를 섞어서 고루 찼어 떡을 만든 다음, 음지에서 말린 뒤 가루 낸다. 건조시킨 가루를 뿌리면 출혈이 멈춘다.

又方 | 또 다른 처방

用白馬糞, 不拘多少, 曬乾爲末. 凡遇刀斧所傷, 乾摻, 其血卽止.

적당량의 백마 똥을 햇볕에 찌어 말리고 가루 낸다. 칼이나 도끼에 다친 경우 말려서 뿌리면 출혈이 멈춘다.

葱搭法 | 총답법 : 파를 붙이는 방법

治打撲損傷, 腫痛.

타박상으로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用葱頭, 切爛, 炒焦擣, 搭患處, 冷則再易. 止疼消腫散瘀.

파 윗부분을 잘라 짓이긴 다음, 탈 때까지 볶아 찼어서 환부에 붙이되, 차가워지면 다시 바꿔서 붙인다. 이렇게 하면 통증이 멎고 붓기가 가라앉고 어혈이 풀린다.

1.3.2. 治殺傷不透膜者 | 죽을 만한 상처를 입었으나 내막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경우의 치료

用乳香 沒藥 各一錢, 研爛, 以小便半盞, 好酒半盞, 同藥通口服, 然後用花蕊石散, 或烏賊魚骨, 或龍骨爲末, 傅瘡口上, 立止.

유향과 몰약 각 1돈을 문드러지게 간 다음, 소변 반 잔, 좋은 술 반 잔을 앞의 약과 섞어 한 입에 복용한다. 그런 다음 화예석산(花蕊石散)이나 오징어의 뼈, 혹은 용골을 가루 내어 창구(瘡口)에 붙이면 피가 바로 멎는다.

1.3.3. 治金瘡, 內爛生蛆者 | 쇠붙이에 다친 상처에 속이 문드러지고 구더기가 생긴 경우의 치료

右以皂礬飛過爲末, 乾摻, 其蛆卽死.

수비한 조반을 가루 내어 말려서 뿌리면 구더기가 죽는다.

1.3.4. 治金傷肚腹腸出者 | 쇠붙이에 다쳐서 뱃속의 창자가 흘러나온 경우의 치료

右以避風處, 用麻油潤手, 安腸入內, 以桑皮作線縫之. 更以熱鷄血塗上一夜, 次用止痛生肌散, 或花蕊散, 敷貼. 仍用磁石三兩, 燒紅醋七次, 搗碎研如粉, 滑石三兩, 鐵精三兩, 右爲細末研勻, 每服一錢七分, 溫酒調下, 日進三兩服.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참기름을 손에 발라 장을 뱃속에 넣고 뽕나무 껍질로 실을 만들어 꿰맨다. 그 위에 뜨거운 닭의 피를 발라서 하룻밤 동안 둔 다음, 지통생기산(止痛生肌散)이나 화예산(花蕊散)을 고루 붙인다. 이어서 자석 3냥(불에 붉게 달궈다가 식초에 7번 담금질한 후, 찢고 부수어 가루 낸다) 활석 3냥, 철정 3냥을 곱게 가루 낸 뒤 고루 섞어서 매번 1돈 7푼을 따뜻한 술에 하루 2~3번 복용한다.

1.3.5. 治藥毒箭頭, 在身不出 | 독화살촉이 몸에 박혀 나오지 않는 경우의 치

雄黃細研一分, 粉霜細研半兩, 蜣螂四兩, 研末生用, 巴豆三粒去皮殼, 別研如泥, 生用.

웅황(곱게 간다) 1푼, 분상(곱게 간다) 반냥, 쇠똥구리 4냥(생것을 갈아 가루 낸다), 파두 3알(껍질을 제거하여 따로 진흙처럼 간다. 생것을 쓴다).

右同研勻, 以銅筋頭, 取乳汁, 塗點瘡上. 頻頻用之, 次日瘡熱, 箭頭自出.

이상의 약재를 함께 고루 간 다음, 구리로 만든 젓가락 끝에 젖을 발라서 약을 찍어 상처에 바른다. 자주 발라서 다음날 상처부위에서 열이 나면 화살촉이 저절로 나온다.

1.3.6. 又方, 治毒箭所中 | 또 다른 처방으로, 독화살에 맞은 경우의 치료

右搗藍葉汁一升, 飲之, 渣傳瘡上. 若無藍, 取青布漬絞汁, 服之, 并淋瘡中. 鏃不出, 搗鼠汁塗之, 鼠腦亦得用之, 卽出.

쪽잎 찢어낸 즙 1되를 마시고, 찌꺼기를 상처에 붙인다. 만약 쪽이 없으면 쪽물 들인 베를 담갔다가 짜낸 즙을 복용하고, 상처 속에 소량을 떨어뜨린다. 화살촉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쥐를 찢어서 낸 즙을 바르면(쥐의 뇌도 쓸 수 있다) 곧 나온다.

1.3.7. 治箭頭不出方 | 화살촉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하는 방법

蜣螂自死者十箇, 土狗子三个, 婦人髮灰少許.

쇠똥구리(저절로 죽은 것을 쓴다) 10마리, 땅강아지 3마리, 부인의 머리카락 태운 재 소량.

右將蛻螻去殼, 取白肉, 與二味同研如泥. 用生塗中箭處如膏, 塗後內微(微)痒, 卽以兩手蹙之, 其箭頭自出.

쇠똥구리의 껍질을 제거하고 흰 살만 취하여 나머지 두 약재와 함께 진흙처럼 간다. 생것으로 찢득하게 고약처럼 만들어 화살 맞은 부위에 바르는데, 바른 후에 속에서 약간 가려울 때에 양손으로 짜내면 화살촉이 저절로 나온다.

1.3.8. 治骨中箭頭方 | 뼈 속에 화살촉이 박힌 경우를 치료하는 방법

雄黃一分, 蛻螻一分研, 石灰末一分, 牛糞火燒令赤色 威靈仙一分, 朝桂〔挂〕鼠一枚去頭取血.

웅황 1푼, 쇠똥구리(간다) 1푼, 석회 가루 1푼, 소똥(붉은 색이 될 때까지 태운다) 위령선 1푼, 쥐 1마리(아침에 잡은 것을 쓴다. 머리 부분을 잘라내어 피를 받는다).

右爲末, 入鼠血, 并煉蜜丸如黃米大, 納瘡口中, 其箭頭自出.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내고, 쥐의 피와 졸인 꿀과 함께 개어 찰기장 쌀알만하게 환을 빚어 창구 속에 넣으면 화살촉이 저절로 나온다.

1.3.9. 又方, 治骨中箭頭 | 또 다른 처방으로, 뼈 속에 화살촉이 박힌 경우의 치료

巴豆一枚去殼, 膩粉⁴一分, 砒礪少許, 磁石半兩細研, 蛻螻一枚.

파두(껍질을 제거한다) 1개, 경분 1푼, 비상 소량, 자석(곱게 간다) 반 냙, 쇠똥구리 1마리.

右爲末, 以鷄清和丸如菉〔綠〕豆大, 用生男子⁵乳汁, 化一丸, 樸在破處上, 用醋麪紙封貼, 常痒, 痒極不可忍, 其鏃自出也. 多年者兩上, 當年者, 一上, 卽出箭鏃.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내고 계란 흰자에 개어 녹두만하게 환을 빚는다. 갓난아이가 먹는 것에 1환을 녹여 상처 위에 붙이고, 식초에 밀가루를 개어 종이에 발라서 약을 붙인 곳을 싸매면 가렵게 되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하게 가려워지면 화살촉이 저절로 나온다. 오래 된 경우에는 두 번 붙이고, 그 해에 박힌 경우에는 한번 붙이면 화살촉이 나온다.

2. 綿: 『본초강목』(권17, 大黃)에는 ‘錦’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본초강목』을 따른다. ↩

3. 金문대황(錦紋大黃): 뿌리 안쪽에 비단무늬가 있는 대황. 『동양의학대사전』(고문사). ↩

4. 膩粉: 『본초습유(本草拾遺)』에 경분(輕粉)의 이명으로 되어 있다. ↩

5. : 『의방유취』 권185의 성혜방(聖惠方)에는 ‘兒孩兒’로 되어 있다. 이를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

1.4. 破傷風論 | 파상풍에 대하여

破傷風者, 先有破傷風, 邪襲入瘡口, 其症大似傷寒, 而瘡口驟結白痂, 是其驗也. 或發熱, 或寒熱間作, 甚則口噤目邪, 身體彊直, 如角弓反張之狀, 死在朝夕矣. 法當同傷寒, 處治因其有在表, 在裏, 半表半裏, 三者之不同, 故不離乎汗下和三法也. 是故在表者, 汗之, 在裏者, 下之, 在半表半裏之間者, 宜和解之.

파상풍은 먼저 파상풍에 걸려 사기가 창구(瘡口)에 침입한 것으로, 증상이 상한과 매우 비슷하지만 창구에 흰 딱지가 생기는 증상으로 파상풍임을 구별할 수 있다. 혹은 열이 나거나 한열이 번갈아 일어나며, 심하면 입을 악다물고 눈이 비뚤어지고, 몸이 뻣뻣해지고, 허리와 등이 활처럼 뒤로 젖혀져 목숨이 매우 위급하게 된다. 치법은 상한과 동일한데, 표(表)에 있는가, 이(裏)에 있는가, 반표반리(半表半裏)에 있는가에 따라서 치료한다. 이 3가지의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법(汗法).하법(下法).화해(和解)의 3가지 치료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표(表)에 있는 경우에는 땀을 내고, 이(裏)에 있는 경우에는 설사 시키고, 반표반리에 있는 경우에는 화해시켜야 하는 것이다.

又, 羌活防風湯 | 또 다른 처방, 강활방풍탕

治破傷風, 邪初傷在表.

파상풍으로 사기(邪氣)가 처음에 상처의 겉에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羌活 防風 川芎 藁本 當歸 白芍 甘草 各四兩, 細辛 地榆 各二兩.

강활 방풍 천궁 고본 당귀 백작약 감초 각 4냥, 세신 지유 각 2냥.

右咬咀, 每服各一兩, 水二盞, 煎至一盞, 去渣, 溫服, 不拘時量. 緊慢加減用之, 熱加黃芩二兩, 大便秘加大黃一兩, 緩緩利過.

이상의 약재를 잘게 썰어서 매번 각 1냥씩 물 2잔에 넣고 1잔이 될 때까지 달이고 찌꺼기를 제거하여 시간이나 양에 상관없이 따뜻하게 복용한다. 증세의 긴급함과 완만한 정도에 따라서 약재를 가감하는데, 열이 나면 황금 2냥을 더하

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대황 1냥을 더하여 서서히 설사하게 한다.

奪命散 | 탈명산

治破傷風, 如角弓反張, 牙關緊急.

파상풍으로 허리와 등이 활처럼 뒤로 젖혀지고 이를 악 다무는 경우를 치료한다.

天麻 白芷 川芎去皮 各二錢, 草烏 雄黃 各一錢.

천마 백지 천궁(껍질 제거) 각 2돈, 초오 옹황 각 1돈.

右爲末, 酒糊丸如桐子大, 每服十丸, 溫酒送下.

이상의 약재를 가루내고 술을 넣어 쏘 풀에 개어 벽오동씨만하게 환을 빚어 10환씩 따뜻한 술에 복용한다.

定風散 | 정풍산

治破傷風, 牙關緊急.

파상풍으로 이를 악다무는 경우를 치료한다.

天南星 防風.

천남성 방풍.

右爲細末, 破傷以藥敷瘡口, 然後以溫酒調一錢服. 如牙關緊急, 角弓反張, 用藥二錢, 童便調下.

이상의 약재를 곱게 가루 내어 파상풍에는 약 가루를 창구에 바른 후에 따뜻한 술에 1돈을 타서 복용한다. 이를 악 다물고 허리와 등이 활처럼 뒤로 젖혀지는 증상에는 2돈을 동변에 타서 복용한다.

1.5. 行軍煙火所傷 | 행군하다가 연기나 불에 상한 경우

凡遇煙火所傷, 切不可用冷水冷物, 熱得冷氣則却擊搏〔搏〕, 爛人筋骨, 慎之慎之. ○一方, 用麻油, 浸黃蜀葵花, 付上. ○一方, 用爛黃柑汁, 塗之. ○一方, 用多年白螺螄殼, 火煨爲末, 瘡破乾摻, 不破, 清油調敷. ○一方, 用側柏葉, 搗爛付上. ○一方, 用寒水石 大黃 黃柏 各等分, 爲末, 蜜調敷之.

연기나 불에 상한 경우에는 절대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무언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열이 냉기를 만나면 충돌하여 사람의 근골을 문드러지게 하니,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처방으로, 참기름에 황촉규화를 담갔다가 상처 위에 붙인다. ○또 다른 처방으로, 누런 감귤을 짓이겨서 낸 즙을 바른다. ○또 다른 처방으로, 몇 년 된 흰 우렁이의 껍질을 불에 달구고 가루 내어 찢어진 상처에는 말려서 뿌리고, 찢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식물성 기름에 개어 바른다. ○또 다른 처방으로, 측백의 잎을 문드러지게 찢어 상처 위에 붙인다. ○또 다른 처방으로, 한수석 대항 황백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내어서 꿀에 개어 바른다.

1.6. 冬月手足皸裂 | 겨울철에 손발이 트고 찢어지는 경우

凡士卒冬月涉水，一切風雪凌凍所苦，手足面目皸瘡出血。一方，清油半兩，以慢火煎沸，入黃蠟一塊同煎，候溶，入官粉五倍子末少許，熬令稠紫色爲度。先以熱湯洗，火上烘乾，卽用藥敷上，以薄紙貼之。○一方，用瀝青一兩，黃蠟一兩，共熬攪勻，瓦罐盛貯。先以熱湯洗，令皮軟拭乾，將藥用慢火略烘溶，付之。○一方，用茄子根濃煎湯，洗過，以黃丹爲末，豬油調付。

병사가 겨울에 물을 건너거나 온갖 바람이나 눈, 얼음 등으로 고생하여 손발과 얼굴이 트거나 동상에 걸려 피가 나오는 경우. 한 가지 처방으로, 식물성 기름 반 냇을 약한 불로 끓도록 달이다가 황랍 1덩어리를 넣고 함께 달여 녹을 때까지 기다린 후, 관분과 오배자 가루 소량을 넣고 찢들거리면서 자줏빛이 될 때까지 달인다. 먼저 뜨거운 물로 씻고 불기운에 찢어 말린 후 약을 위에 바르고 얇은 종이를 붙인다. ○또 다른 처방으로, 송진(松津) 1냥, 황랍 1냥을 함께 달이며 고루 섞어 질그릇에 담아둔다. 먼저 뜨거운 물로 씻고 부드러운 가죽으로 닦아 말린 후 약한 불에 약을 살짝 찢어 녹여서 붙인다. ○또 다른 처방으로, 가지 뿌리를 넣어 진하게 달인 탕으로 씻고 황단가루를 돼지기름에 개어 붙인다.

1.7. 救五絶死 | 다섯 가지 종류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치료

一救溺水死者, 用皂角爲末, 綿裹(裹)塞糞門, 放大凳臥着脚, 後凳墊起一二磚⁶, 用鹽擦鼻中, 待水自流出. 切不可倒提出水, 但心下溫, 皆可救. ○一方, 急解衣帶, 艾灸臍中, 令二人以蘆管吹其耳中, 卽活.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조각을 가루 내고 천에 싸서 항문을 막고 큰 책상 위에 다리를 붙여서 눕힌 후에 책상의 우묵한 곳에 1~2개의 벽돌을 세워 다리를 높게 두고, 소금으로 콧속을 문지르며 물이 저절로 흘러나오기를 기다린다. 절대 거꾸로 들어서 물이 억지로 나오게 해선 안 된다. 단, 명치가 따뜻해야 살릴 수 있다. ○또 다른 처방으로, 급히 옷과 허리띠를 풀고 속으로 배꼽 가운데에 뜸을 뜨며, 두 사람이 갈대 대롱으로 양쪽 귓속에 불어주면 살아난다.

一救木石壓死, 并從高跌死, 氣絶不能言者, 取藥不便, 急擘開口, 以熱小便灌之. ○一方, 豆豉一大盞, 水兩碗煎三沸, 去渣服.

나무나 돌에 눌러 죽게 된 경우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경우, 기절하여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치료하는데 바로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면 급히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벌리고 뜨거운 소변을 먹인다. ○또 다른 처방으로, 두시 1 큰 잔을 물 2사발과 함께 3번 끓도록 달이고 찌꺼기를 제거하여 복용한다.

一救夏月途中熱死者, 不可用冷水灌沃, 及以冷物逼外得冷, 卽死. 宜以置衾處, 急取路上熱土, 於死人臍上作窩多, 令人尿溺於臍中. 又取路上熱土, 并大蒜同研爛, 水調去粗(粗)灌下.

여름철에 길에서 더위에 죽게 된 경우에는 냉수를 부어서는 안 되니, 차가운 것으로 외부에서 찔박하여 냉기를 얻으면 즉사하기 때문이다. 환자를 음지에 눕히고 재빨리 길 위의 뜨거운 흙을 퍼서 죽은 사람의 배꼽 위에 우묵하게 다

량 쌀고 타인으로 하여금 배꼽 가운데에 오줌을 누게 한다. 또 길 위의 뜨거운 흙과 마늘을 함께 문드러지도록 찡고, 물에 탄 후 찌꺼기를 제거하여 먹여준다.

一救冬月凍死, 及落水中凍死, 微有氣者, 脫去濕衣, 解生人熱衣包之. 用大米炒熱熨心上, 或炒竈灰令熱, 以囊盛熨心上, 冷則煖之, 令煖氣通. 溫以熱酒, 或姜湯, 或粥飲少許, 灌之即活.

겨울에 얼어 죽게 되거나, 물에 빠져서 얼어 죽게 되었는데 약간이나마 기운이 있는 경우에는 젖은 옷을 벗기고 살아 있는 사람이 입었던 따뜻한 옷을 벗어서 감싸준다. 그리고 쌀을 볶아 뜨거운 채로 가슴을 찜질하거나, 부엌의 재를 뜨겁게 볶아 주머니에 담아 가슴을 찜질하는데, 식으면 다시 따뜻하게 하여 따뜻한 기운이 통하게 한다. 환자의 기운이 따뜻해지면 뜨거운 술이나 생강탕, 물은 죽 소량을 먹여주면 살아난다.

一救中百毒急死, 用甘草同黑豆煎湯, 灌之. ○一方, 以麻油灌之. ○一方, 以芫荽根搗爲汁半盞, 和酒服之.

온갖 독에 중독되어 갑자기 죽게 된 경우의 치료에는 감초와 검정콩 함께 달인 물을 먹여준다. ○또 다른 처방으로, 참기름을 먹여준다. ○또 다른 처방으로, 고수뿌리 찢어 낸 즙 반잔을 술에 섞어 복용시킨다.

⁶. : 『광제비급(廣濟秘笈)』 婦人門 3권에는 “救溺水死, 以大凳臥之後足放高.”로 되어 있다. 이를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

2.1. 해제

2.1.1. 『군중의약』의 편자

이 책의 편집자인 왕명학(王鳴鶴)은 『명사(明史)』, 『회안부지(淮安府志)』, 『산양현지(山陽縣志)』 등에 그의 전(傳)이 전하지 않아 구체적 행적을 알기 어렵다. 다만 그의 역작인 『등단필구(登壇必究)』에 실린 장조서(張朝瑞)의 서문(序文)과 자서(自序)에 의해 그의 생애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왕명학의 자(字)는 우경(羽卿)이며 산양(山陽, 지금의 강소江蘇 회안淮安) 사람이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장군(將門)이었다고 한다. 그는 1586년(만력萬曆 14) 무진사(武進士)가 되었으며, 회안위지휘동지(淮安衛指揮同知)에 임명되었고, 호광운양수비(湖廣鄖襄守備)가 되었다가 운양(鄖襄) 군사(軍事) 반란을 평정한 공로로 호광행도사첨사(湖廣行都司僉事)로 승진하였다. 그리고 병부(兵部)에서 장군(將軍)을 선발할 때에 발탁되어 협서유격(陝西游擊)으로 승진하였다. 이후 계속 진급하여 오군영좌부장(五軍營左副將), 광서총병(廣西總兵), 표기장군(驃騎將軍), 남경우부도독첨사(南京右府都督僉事)에 이르렀다. 왕명학의 탁월함은 대대로 이어진 가문의 전통과 20여 년 동안 야전(野戰)에서의 충분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군진에 필요한 자료를 여러 서적에서 섭렵하여 체계화하고 이론화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물이 바로 1559년(만력萬曆 27)에 완성된 『등단필구』라는 서적이다. 이 책은 중국 내에서 무관(武官) 승진의 필독서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병서(兵書)로, 각종 서적에서의 인용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을 모델로 한 『단구첩록(壇究捷錄)』이라는 책까지 나왔다.

『군중의약(軍中醫藥)』에는 명의 왕명학이 편집하였다는 표기가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간행할 때에 서문(序文)이나 발문(跋文)을 남기지 않아 어느 때에 누구에 의해 간행되었는지 정확한 간행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이 책에 사용된 활자에 여러 서체가 다소 조잡하게 섞여 있어 양대 왜란을 겪은 후 군진의학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훈련도감(訓練都監)에서 급조한 판본으로 찍은 것으로 보

인다. 때문에 간행 시기는 황해군(光海君) 무렵으로 추정된다.(안상우. 軍中醫藥. 고 의서 산책(8). 民族醫學 258호. 1999년 11월 8일 기사에서 발췌) 오늘날 중국에는 이 책이 전존(傳存)한다는 보고가 전혀 없으며 비슷한 책으로 청간(淸刊) 무명씨(無名氏)의 『군중의방비요(軍中醫方備要)』라는 서적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서적은 광해군 즈음에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것으로, 현재까지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 판본만 현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2. 『군중의약』의 형식 및 구성

『軍中醫藥』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청구기호 : 奎中 1742)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고전명저총서 DB에서 원문 텍스트와 원문이미지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URL:<http://jisik.kiom.re.kr>) 이 책은 『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로서는, 한의고전명저총서DB를 이용하는 것이 접근성에 있어 탁월하다.

『軍中醫藥』의 간략한 서지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명 軍中醫藥

저자사항 王鳴鶴(明) 編輯 / 袁世忠 校正 / 門生 方元壯·鍾伏武 同校

판본사항 訓練都監字

형태서지 1冊(18張)/四周雙邊/9行16字/注雙行/ 34.2×21.4cm

간행년도 미상

간행자 미상

이상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1책(冊) 18장(張)이라는 아주 짧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의 짧은 분량 자체가 전시(戰時)의 위급함을 대비하여 필수적인 내용만 압축하였음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전장에서 책을 용이하게 휴대할 수 있게 하는 초저라 할 수 있다. 특히 특징적인 것은, 이 책의 출간 목적이 군부에서의 지휘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래 언급과 같이 말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력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군졸들을 위해 지어진 책이라는 점이다.

왕명학(王鳴鶴)은 말한다. 국가가 사직(社稷)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군대의 법도를 우선해야 한다. 그래야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살아남는 것이다. 사직과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온힘을 쏟아야 하는 대상은 군졸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장수가 된 자가 마땅히 제 몸처럼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도 군대가 가장 중요하다.....그러므로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는 “백성을 보호하면 임금에게 이롭다.” 했고, 『삼략(三略)』에서는 “훌륭한 장수는 군졸을 잘 보호하여 자기 몸처럼 아낀다.” 했으니, 이는 참으로 영원히 귀감으로 삼아야 할 말이다. 이에 의약에 관한 처방을 모아 책을 만들고 이처럼 나의 억설(臆說)을 붙인다.[王鳴鶴曰: 國家所藉以安社稷衛生靈者, 必先于軍興之典. 故出萬死一生. 爲社稷生靈, 授命效力, 莫重於軍, 而爲將者所宜體恤愛護, 亦莫重於軍.....故曰: “惟民是保, 而利于上.” 又曰: “良將養士, 不易乎身.” 斯眞萬世之龜鑑哉! 乃輯醫藥, 而繫之臆說如斯云.]”(輯醫藥說)

때문에 처방에 보이는 주요 특색 가운데 하나도, 처치에 있어서 간이성(簡易性)을 최대한 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제(丸劑)나 산제(散劑)가 처방의 주종을 이루도록 편집되어 있다. 이는 의학지식을 야전 사령관 입장에서 재편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은 여섯 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여섯 항목 아래에 필요한 처방을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여섯 항목에 일련 기호를 붙여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疫氣諸病捷說[역기로 인한 온갖 병을 빨리 낫게 하는 방법에 관하여]
2. 折傷金瘡說[다치거나 무기에 신체가 손상된 경우에 대하여]
3. 破傷風論[파상풍에 대하여]
4. 行軍煙火所傷[행군하다가 연기나 불에 상한 경우]
5. 冬月手足皸裂[겨울철에 손발이 트고 찢어지는 경우]
6. 救五絕死[다섯 가지 종류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치료]

우리는 위의 항목에서 특기점 하나를 확인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고전적인 전쟁에서 군졸들에게 닥친 참화(慘禍)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대개 적의 병기에 의한 외상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때문에 군진의학에서는 위의 항목 중 2번째 항목인 ‘折傷金瘡說[다치거나 무기에 신체가 손상된 경우에 대하여]’이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어질 듯한 인상을 받기 쉽다. 그러나 왕명학은 군진의학의 필요성에 대해 다소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내용을 보자.

옛날에 출병할 때에는 반드시 의약을 우선시 하였으니, 이는 군영을 꾸릴 때에는 반드시 산천을 의지하기 때문에 매번 산과 바다의 사기(邪氣)를 범하고, 아울러 서리와 눈, 비바람까지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몹시 내달려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혹한이나 무더위에 들판에서 노숙하며 주둔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의 더러운 기가 서로 엉겨서 역병이 쉽게 발생하였으며, 수기와 토질이 맞지 않아 객란이나 학질·이질을 앓아 파리하게 병들었으나 편안히 누워 몸조리할 겨를이 없었다.[古者行軍, 必急醫藥, 蓋結營必依山川, 每犯山嵐海氣, 兼之霜雪風雨, 奔走罷勞, 沍寒酷暑, 野屯露宿, 衆人氣穢交蒸, 疫病易起, 不服水土, 霍亂瘧痢, 愴悴有病, 不暇安臥調理.]

왕명학은 옛날부터 “출병할 때에 반드시 의약을 우선시” 하였던 이유가 적군의 병기에 의한 외상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기후나 낯선 수기(水氣)와 토질(土質) 등의 환경으로 인한 역병과 같은 전염병, 학질, 이질 등 집단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질병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군중의약』 내에서는 ‘역기(疫氣)’ 관련 항목이 제일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으며 전체 분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다. 이는 당시 전쟁에서 적의 병기에 의한 전투력 손실보다 유행성한역(流行性寒疫), 산람장기(山嵐瘴氣), 비나 습기 등에 의한 증기, 더위, 추위, 전염병 등 군사들이 전투 시에 접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의한 요인이 의료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첫 번째 항목에 웅저발배(癰疽發背), 웅결(癰癰) 등 씻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피부에 생기는 종기와 같은 병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전장에서 위생 여건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지를 지시한다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시각이 20여 년 동안 전장을 누볐던 장군에게서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야전 사령관의 안목에 따라 의학적인 부분을 재편했다고 한다면, 이 책의 체재 및 내용 자체가 당시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읽게 해준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의학자의 시각이 아니라 전장을 누빈 장군의 시각에서 편집된 『군중의약』은 짧은 편폭의 글 속에 당시 동아시아 군진의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당시 전쟁의 이면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무엇보다 그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만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는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1.3. 『군중의약』의 의의

『군중의약』은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유일한 군진의학(軍陣醫學) 전문서(專門書)라는 면에서 역주 작업 자체가 갖는 의의가 크다. 이 책의 편집자인 왕명학은 중국인이지만, 중국에서도 현재 청간(淸刊) 작자미상의 『군중의방비요(軍中醫方備要)』라는 서적이 전하고 있을 뿐, 이 책이 전존(傳存)한다는 보고가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군중의약』은 1책 18장이라는 아주 짧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시의 위급함을 대비하여 핵심적인 내용만을 압축하였음을 시사한다. 전시의 위급함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처방들이 처치에 있어서 간이성을 최대한 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알약이나 가루약이 처방의 주종을 이루도록 편집되어 있다. 때문에 오늘날 군진 의학서 뿐 아니라 구급서(救急書)로서의 일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 책에서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절상(折傷)에 대한 논의나 처방보다 역기제질(疫氣諸病)에 대한 논의와 처방이 압도적인 비중으로 다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야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인은 적군의 병기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기후

나 낯선 수기(水氣)와 토질(土質) 등의 환경으로 인한 역병과 같은 전염병, 학질, 이질 등 집단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지시하는 것인데, 이는 당시 동아시아 전쟁 상황의 한 일면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야전에서 긴 시간을 보낸 편집자 왕명학의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관점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王鳴鶴 編輯. 軍中醫藥. 규장각 소장.
2. 정의민·이선아·김남일, 신편집성마의방의 의사학적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9. 08.
3. 金泳坤. 『醫方類聚』를 통해 본 朝鮮前期 折傷醫學.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8. 2.
4. 신동원. 한국마의학사. 마문화연구총서 8.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2004.
5. 안상우. 軍中醫藥. 고의서 산책(8). 民族醫學 258호. 1999년 11월 8일.
6.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 본 해제는 다음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박상영, 한창현, 안상영, 권오민, 안상우. 軍中醫藥 翻譯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23(1):31-46.



출판사항

<참고> 글꼴 설정을 "원본"으로 지정해야 글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글꼴 적용 로딩시간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 국역 군중의약 軍中醫藥

원저자 : 미상

국역 : 박상영

해제 : 박상영

편집 : 문진

발행인 : 이해정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초판) 2014년 12월 10일

(2판) 2016년 10월 31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하여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박상영이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14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9 788959 701674 ISBN 978-89-5970-167-4 (EPUB)	<p>비매품</p>  95510	 9 788959 702329 ISBN 978-89-5970-232-9 (MOBI)	<p>비매품</p>  95510	 9 788959 702312 ISBN 978-89-5970-231-2 (PDF)	<p>비매품</p>  95510
---	---	---	---	---	---